

6. '98年以後 首都圈 宅地需給計劃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 宅地開發課

건설교통부는 신경제 계획기간('93~'97)의 소요택지 확보현황을 총점검하고, 신경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택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 가능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'98년이후 중·장기 택지확보 대책을 마련하였음.

- 오는 '98년부터 2002년(5년간)까지 서울, 인천, 경기등 수도권에서 신경제5개년계획기간('93~'97)의 택지개발규모 3,900만평보다 많은 총 4,250만평의 택지가 개발·공급될 전망이다.
- '90년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60만호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율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수도권의 경우는 아직도 주택이 상당히 부족하여 신경제 이후에도 매년 27만호(5년간 135만호) 정도의 주택을 건설 공급할 계획임.

〈주 택 현 황〉

구 분	'90	'95	수도권(서울)	여타지역
주택보급율	72.4%	86.1%	76.5(67.7)	94.0
주택부족수	2,811천호	1,552	1,186(825)	366

* 지방 6개시도(강원, 충남·북, 전남·북, 경북)는 보급율 100%상회

- 이와 같이 13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총 4,250만평의 택지가 소요되며,
 - 공공부문에서 2,130만평(31개지구)을 택지개발등으로 공급하고
 - 민간부문에서 나대지, 재건축·재개발, 준농림지역 등을 개발하여 2,120만평을 공급할 계획임.

〈주택건설 및 택지수급계획〉

(단위 : 주택-만호, 택지-만평)

연 도	계	'98	'99	2000	2001	2002
주택건설	135만호	27	27	27	27	27
택지공급	4,250만평	850	850	850	850	850
• 공공	2,130만평	426	426	426	426	426
• 민간	2,120만평	424	424	424	424	424

○ 동 계획(공공부문)에 따르면

－ 생활권역별로는

△ 서울·인천지역에 890만평

△ 수원등 남부권에 970만평

△ 동두천을 비롯한 북부권에 270만평등 총 2,130만평이 개발됨

－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리별로는

△ 30km 이내에서 1,181만평이 개발되는 것을 비롯하여

△ 30~40km권에 685만평

△ 40km이상지역에서 264만평임

○ 대상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은 거리별, 생활권역별로 지역적 균형개발을 유도하면서, 도로·상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도시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국가정책사업, 도시정비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조속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 개발토록 하고

○ '98~'99년에 소요되는 택지는 현재 현지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(10개지구 910만평) 2,000~2002년에 필요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진할 계획임